

별

문삼석 지음

아동문예 / B5변형 / 120면 / 3000원

산길은 참 / 좁은 길이어요. / 풀잎이
단번에 / 뛰어넘지요. / 산길은 참 / 작은
길이어요. / 풀숲에 숨으면 / 보이지도
않지요. (「산길 · 1」)

꿈이 / 있느냐고 / 나직히 / 묻는 소리 /
꿈이 / 무어나고 / 한밤내 / 묻는 소리.
(「별 · 1」) 외롭잖니? / 밤비야.
/ 혼자서만 내리는 / 밤비야.
/ 무섭잖니? / 밤비야. / 어둠 속을
다니는 / 밤비야. (「밤비 · 1」)

63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동시당선으로
등단한 저자(광주 서평여자중학교 교사)의
연작동시집.

산길 20편, 별 15편, 밤비 15편 등 모두
50편의 동시를 실었다.

마젤란의 대항해

한영환 지음

범우사 / A5신 / 132면 / 1500원

페르디난드 마젤란은 1408년
포르투갈에서 태어났다. 어렸을 때부터
침울한 성격이어서 '회색의 사나이'라고
불리기도 한 그는 바다를 무척 사랑하였다.

1517년, 마젤란은 평소 애보고 싶었던
세계일주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스페인의
카를로스왕에게 지원을 요청한다. 젊은
카를로스왕은 마젤란의 뜻을 받아들여
마젤란 탐험대를 후원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렇게 해서 마젤란의 탐험이 시작되었다.

굶주림, 질병, 불안감 속에서 탐험대는
4개월만에 필리핀의 작은 섬에 도착하게
된다.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세계 최초로
증명한 항해가 마젤란의 일대기를 엮었다.
범우오뚜기문고 39.

갯바위 오르는 아이들

이귀옥 엮음

오상출판사 / A5신 / 118면 / 2000원

동거차도 섬아이들의 글모음.

우리나라 최남서 해안에 위치한 작은 섬
동거차도는 "중국에서 새벽 첫 닭이 울면 그
소리가 들린다"는 전설이 전해오고 있는 곳.
이곳 어린이들의 글 50여편을 담았다.

「서울나들이」「갈대밭」「엄마 없는 아기
갈매기」등 기행문, 동요, 동시, 글짓기,
독후감 등 꾸밈이 없이 씩어진 글들을 통해
섬 어린이들의 맑고 순수한 생각과 느낌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저자 (신한투자금융 근무)는 이 책을
"모든 동네 아이들이 참여하여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동네 아이들 문고집"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철학동화집

이영 지음

동화문학사 / A5신 / 190면 / 2500원

신은 왜 항상 그 자리에만 앉아 있는가?
하늘에선 왜 비와 눈박이 떨어지는 것이
없을까? 강물은 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를 수 없는가? 하느님은 정말로
존재하는가? 사람은 늙으면 왜 죽어야
하는가? 이러한 의문들을 함께 풀어보는
철학동화집. 논리적인 생각과 토론을 통해
지혜로운 결론을 내리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저자(인창국민학교 교사)는 일선
교직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 가정
등 어린이를 둘러싼 환경 속에서 빛어지는
각종 철학적 생각과 의문을 소재로
어린이들의 '생각하는 삶'을 유도하고 있다.



아기별과 개똥벌레

박학목 지음

화솔 / A5신 / 190면 / 3000원

아기별은 땅의 세계가 무척이나 재미있게
보였다. 그래서 해가 서쪽 하늘로 지기만
하면 아기별은 땅을 내려다 보았다.

하루는 한국의 농촌 어느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개똥벌레가 눈에 띄지 않았다.

불을 켜고 다니는 개똥벌레는 '땅의 작은
별'이라고 불렸는데 아기별은 개똥벌레가
어떻게 불을 켜는지, 또 그 불을 켜고
어떻게 날아다니는지 알고 싶었기 때문에
엄마별을 졸라 땅으로 내려갔다.

풀숲 사이로 여기저기 다녀 찾아봐도
개똥벌레는 보이지가 않았다. 아기별이
밤새도록 다니며 흘린 눈물은 이슬이 되었다.
「아기별과 개똥벌레」의 10편의 동화를
실었다.

꾸러기 일기

빅토리아 빅터 지음 / 편집부 엮음

글수레 / A5신 / 246면 / 2500원

개구장이 조지는 천하의 악동. 엄격하지만
자상한 부모님과 아름답고 상냥한 결혼을
앞둔 세 누나와 함께 사는 그는 매일매일
착한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한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가장 좋은 일'이라
생각하고 행하는 일마다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그래서 그는 늘 밤을
꿰어야 하고 방에 갇혀 있어야 하고 매를
맞기도 했다.

기숙사에서 쫓겨난 후, 기구를 타고
날아가다 무인도에 표류한 조지는 로빈슨
크루소와 같은 생활을 하기도 한다.

집에 돌아온 조지는 지난날을 반성하고
착한 어린이가 될 것을 재다짐한다.
꾸러기문고 2.

돌아온 지구소년

한낙원 지음

가톨릭출판사 / B6변형 / 176면 / 2200원

때는 1999년. 원자력발전소의 폭발사고로
머리가 유난히 크고 눈이 튀어나온 혁과
그의 유일한 여자친구인 난은 얼굴생김새와
생각이 엉뚱하였다.

반 친구들한테 놀림만 받고 서로 어울리지
못하는 그들은 지구를 떠나 별나라로 가게
된다. 이후 외계인과 함께 비행접시를 타고
지구로 돌아온 혁과 난은 20대의 젊은이가
되어 있었는데, 지구에서는 60년의 세월이
흘러 모든 환경이 변화한 것에 놀라게 된다.

같이 학교에 다니던 친구의 아들이 오히려
그들보다 나이가 많아보이고, 지구인들은
그들을 외계인을 대하듯 했다.

그래도 그들은 자신들이 지구인이란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것을 기뻐했다.

더불어 사는 어린이

어린이교육연구회 엮음

현암사 / A5신 / 198면 / 2200원

어린이를 위한 무크. 현직 국민학교
교사들이 편집위원으로 참여한 '선생님이
만드는 이땅의 어린이책' 첫째 권이다.

어른 중심으로 되어 있는 사회에서 올바른
어린이문화를 찾아내고, 어린이에게 함께
살아가는 즐거움을 알려주기 위한 재미있고
유익한 글들을 실었다.

'더불어 사는 어린이'를 주제로,
어린이들이 그린 협동화를 소개한 컬러 화보
'하안동 어린이 벽화',

어린이 · 선생님 · 학부모가 평등한 관계로
토론하는 '더불어 사는 어린이', 어려움
속에서도 끈끈한 삶을 사는 어린이를 소개한
'더불어 사는 친구이야기'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꾸며졌다.